

차기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명	김기훈	
소속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직위	교수	

1. 후보 등록을 하며

여러 선후배 교수님들 덕분에 부족한 제가, 지난 3년간 전자재료학회 학계 부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얻어 21년초부터 학회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재신 교수님 및 선배 교수님들의 소개로 전기전자재료학회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 그대로 이 학회에서 소속하여 봉사하고 만남을 이어가며 많은 좋은 분들을 뵈고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 회장님 차기 회장님이 다시 한번 지금처럼 봉사하라는 명을 주셔서 이번에도 기회가 닿는다면 열심히 봉사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산학연 각계의 연구자들과 융합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고 있어서 제가 관심있는 초전도, 투명 반도체, 다강체 물질을 통한 UAM, 자성센서, 에너지 하베스터 응용, 반도체 융합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자연대 교육 경험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도 자연과학도로 공학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서 학회에 시너지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전기전자재료학회 활동을 하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배우며, 제가 더 큰 도움과 학문에 대한 동기 부여라는 좋은 기회와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선배 임원 여러분의 학회를 위한 묵묵한 봉사와 겸손함에 또 많은 점을 배우며, 앞으로도 학회 봉사를 할 기회를 더 주시면, 저 또한 열린 마음으로 그간 전자재료학회에서 받은 보은을 갚는 다 여기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 학회 운영 철학 및 방안

다음과 같은 점에 제가 좀더 학회를 위해 기여를 해보겠습니다.

■ 열린 학회로서의 신임 회원의 증가를 위한 노력

현 회장단 및 차기 회장단을 보좌하여, 우리 학회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전자재료를 활용하여 연구에 임하고 계신 자연대 및 기초 영역 산학연 연구자들을 우리학회에 가입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학술 및 기술 활동 증가와 국내외 교류

다년간 기초 및 응용 재료를 위주로 한 학술회의 진행 경험을 살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초 및 응용 연구 주제 발굴을 통한 학회원들의 학술 활동 증대 및 활발한 국내외 교류에 기여하겠습니다. 꾸준히 신임 연구자들이 본 학회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 최첨단 장비 활용 및 전문가 세미나 활성화를 통한 교육 활성화

전 기초과학 공동기지원장 및 현 자연대학 기획업무의 근무 경험을 살려, 학회원들이 필요한 신규 첨단 장비의 소개 및 전문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대외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미루어진 전자 현미경 관련 산학연 공개 기술 강좌를 2회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초전도나 반도체 등 관련 학술 분과에 시너지가 나오는 교육 프로그램에 기여해보겠습니다.

■ 대외 협력 증진을 통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 체계 기여

중소기업 운영 및 중소기업 과제 협력 경험을 살려, 산학연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필요 주제 발굴 및 산학연 협력 과제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